

광주시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 시민 '필수템' 됐다

올해 11월까지 8만7214명 이용...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 예약 서비스 확대·검색 강화 등 편의 증진에 홍보 역할도

광주시 통합예약 플랫폼 '바로예약'이 시민들의 필수 아이템이 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대관을 예약할 수 있는 '바로예약' 이용자가 올해 11월까지 8만7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만6133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바로예약'은 시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대관할 수 있는 예약서비스 플랫폼이다. 앞서 예약·접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불편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2년 구축됐다. 예약 서비스 확대와 검색 서비스 강화를 거쳐 현재의 통합예약 플랫폼으로 완성됐다.

기존의 예약 방식인 전화 접수, 방문 예약, 시설별 개별 사이트 이용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했

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 역할도 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바로예약' 누리집 방문자 수는 2022년 9만9993명에서 올해(1~11월) 14만5118명으로 증가하는 등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로예약'은 ▲교육·강좌 ▲견학·체험 ▲시설대관 ▲문화·행사 ▲공모전 등 5개로 분류돼 있다. 교육·강좌는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고, 견학·체험은 농촌 체험과 안전체험, 유아 체험 등을 예약할 수 있다.

문화·행사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인 '더어마이 광주'로 연계돼 해당 누리집에서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을 예약할 수 있다.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등은 상시 예약 가능하다.

특히 이달부터 북구 월출동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예약을 '바로예약'에서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광주시 통합예약 플랫폼 '바로예약' 사이트 이미지.

캠핑족들의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맞춤예약은 통합예약 플랫폼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예약'은 광주시 누리집 '온라인 예약신청' 메뉴를 통해 접근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산사거리~두암삼거리 교통체증 벗어나나 22일 광주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진행되던 지산사거리~두암지구삼거리 구간에 있던 건설자재들이 치워지며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지역의 지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23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올해 최우수시책 '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의대 설립'

전남도 빛낸 시책 TOP10 선정

올 한 해 전남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그만큼 성과도 낸 정책이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후 국립 의대 설립'이었다. 30년 숙원이었던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을 결단을 내린 양 대학과 이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평도 잇따랐다.

전남도는 2024년 올 한해 각 분야에서 추진한 시책 가운데 전남도를 빛낸 올해의 시책 TOP10 가운데 최우수시책으로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후 국립 의대 설립'을 선정했다. 이어 우수시책은

▲1조4000억원 투자 실현, 여수 모도 LNG 허브 터미널 ▲전남 K-관광 닷을 올리다!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최초 건의, 끈질긴 설득, 인과관계 입증으로 비열기 등 농업해제 인정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시책 TOP10은 한 해 동안 전남도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35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직원 심사와 학계, 언론인,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 밖에 장려시책으로 ▲수도권 2시간대 철도시대 개막, 전라선 고속화 철도 ▲20년 도민 숙원 결실, 강진-완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우주발사체

핵심 인프라, 예타 면제 3관왕 1조 725억 원 확보 ▲세계 김 시장 선정을 위한 김 양식장 확대 ▲화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이 선정됐다.

심사에 참여한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올 한해 전남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도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감축 등 어려운 상황에도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각종 시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신안 해상풍력 단지 집적화단지로 조속 지정되어야"

국회 방문...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 만나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1185억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더불어 민주당에 소개하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20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전현희 국회의원을 만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에너지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요건을 갖춘 신안 해상풍력 단지가 집적화단

지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화두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남도가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력공급 문제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과 변전소 345kV급 변전소 2곳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 감소지역에 최대 20% 전기요금 할인 특례 부여를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0일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추진하는 1185억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소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방 정가

"광주시, '대법 통상임금 판결' 대책 마련해야"

채은지 시의원 주장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22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을 하면서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 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로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상여 등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해진다.

채 의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광주시와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